

신안 버스완전공영제 정착 전국서 '주목'

교통불편 해소·지역개발 촉진... 벤치마킹 쇄도 군 "시범지역 지정 전국 확산...정부 지원 필요"

신안군이 운영중인 공영 버스가 군민의 행복을 신고 달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한 신안군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세상을 열어 해묵은 교통난을 해소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섬 주민들을 위한 완벽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하고 안전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현·정착시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버스완전공영제는 신안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패턴까지 변화시켰고

교통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촉진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육지 나들이가 수월해짐에 따라 공영버스를 이용해 건강과 취미,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늘어나 침체된 경제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지난 민선 4기 임자도에서 버스공영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33개 노선, 22대에서 현재 117개

노선에 공영버스 65대를 운영중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상 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연인원 67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영버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우선 노선을 결정하는 주민버스로 자리 잡았다. 군 관계자는 "공영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결과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공익을 우선으로 역점시책으로 삼고 수익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으로 인식해 지

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런 결과"고 말했다.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성공사례는 지난해 전국 버스 총사업 위기 속에서도 수익 비수의 노선 상관이 없이 안정적으로 여객을 운송해 또 다시 주목을 받았다. 특히 1일 대당 운송원가가 17만 9,330원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54% 수준이며, 요금 또한 전체 이용객의 83%가 무상승차해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의 버스공영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화 문의와 방문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신안군을 방문한 강원도 정선군은 올해 6월 버스 공영제를 시행했고 오는 11월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화성시가 버스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버스완전공영제는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완전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도심외곽지역 버스를 구하는 해법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며 "선도적 대중교통을 실현하고 있는 신안군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와 관련부처가 2-3년 꼼꼼히 모니터링 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 가을 여행객 맞이 분주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 배치 특산품 판매처 등 정보 제공

목포시가 주요 관광지에서 대한 편의시설 조성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가을 여행객 맞이에 분주하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목포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된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등 코로나 안심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며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시화골목, 근대역사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각 지점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맛집, 특산품 판매처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가을빛 물드는 해남 달마고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특히, 서산동 시화골목은 영화 '1987' 촬영 이후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졌다. 골목 구석구석에 우리네 이웃의 이야기가 시와 그림으로 펼쳐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다. 시는 지난 7일 골목 초입에 문화관광해설사 상시대기 장소 및 관광객 쉼터공간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편안히 목포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쉼터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여행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 '달마고도 워킹데이'로 힐링하세요"

문화행사·지역 명소 연계 탐방

해남군은 가을빛 물드는 해남 달마고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 동네 달마고도, 함께 걸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걷기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도명품길의 가을 풍광을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달마고도 걷기 이후에는 해남에서 열리는 공재문화제와 미항사 과불제 등 문화행사를 비롯해 삼산

주조장(전통 막걸리)과 통호마을(당집·학도래지), 북평 평암마을(이진성·해월루) 등 지역의 명소를 연계한 색다른 탐방의 시간도 갖는다. 걷기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가자 안전 관리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차수별로 2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실시, 걷기 코스 내 거리두기 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한다. 자세한 일자별 걷기 코스는 해남군청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tour>) 및 관광과 축제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달마고도 걷기와 주변 마을 탐방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해남을 경험하는 힐링 도보여행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가자들이 즐겁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무안 '가족센터 건립' 15억 국비 확보

무안군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일환인 여성가족부 주관 공모사업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센터는 임대시설로써 공간이 협소해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절실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가족센터는 무안군 무안읍 옛 5일시장 장터부지에 연면

적 1,300㎡ 규모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무안읍 옛 5일시장 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1만 6,500㎡ 규모의 무안읍 꿈틀이북향문화센터가 건립된다. 가족센터 입주하는 물론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 청년문화센터인 메이커스페이스, 문화원 등 다양한 복지·문화·돌봄 통합커뮤니티센터로서 앞으로 무안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박주현 기자



진도군은 지난 8월부터 병해충 중점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 5억 투입 병해충 방제 총력

진도군이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예비비 5억원을 긴급 투입하며 병해충 긴급방제와 배추 뿌리혹병 약제 지원에 나섰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날아오는 벼멸구, 흑명나방 등 비래해충과 장마, 태풍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도열병, 문고병, 세균성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우선 예비비 2억여원을 투입, 벼 생육후기 병해충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병해충 중점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뿌리 이상증대, 부정형 흑이 발생해 작물의 고사위 생육불량을 일으키는 병인 배추 뿌리혹병 예방을 위해 예비비 3억여원을 투입해 적용 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방제 약제도 지원하고 있다. /진도=박병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목포해경 생명나눔 헌혈 실시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헌혈 수급을 위해 단체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제67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앞두고 해양경찰관 6,700명이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에 도전하는 뜻 깊은 행사다. 이날 정영진 서장을 비롯해 직원 및 의경 등 120여명이 적극 참여했다.

정 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영향 등으로 혈액수급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제67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사회공헌 일환으로 해양 정화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진도교육청, 관내 교장 영상회의

진도교육청은 최근 관내 교(원)장 22명과 함께, 전남도교육청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신입교육장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장 인사말, 하반기 주요업무 안내, 기타 협의 및 건의 사항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두가 보배로운 혁신진도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로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문포 교육장은 "진도가 가진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전통문화 특성을 살린 융합예술교육,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민주적 학교문화를 생활화해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강진 코로나19 생활방역 실천 캠페인

강진군보건소는 최근 강진군여객터미널 일원에서 보건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사람 간 접촉 최소화,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

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한태선 기자